

일본 강점기 일본인 교사 야스다 야스노리(安田保則)의 교육저술과 교육활동*

한에원**

— 목 차 —

1. 머리말
2. 교사 야스다 야스노리의 교육경력과 교육저술
3. 『조선교육에 안주하여』를 통하여 본 조선의 교육환경
4. 『작위교육의 건설과 귀추』를 통하여 본 교육방법론
5.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일본 강점기 광주(光州)지역의 일본인 교육자 야스다 야스노리(安田保則, 1885~?)의 교육저술과 교육활동을 살펴본 것이다. 야스다는 일본의 이시카와현(石川縣)의 노미군(能美郡)에서 출생하였고, 이시카와현 사범(師範)학교를 졸업한 뒤, 1915년 조선총독부의 공립학교 훈도(訓導)가 되어서 조선으로 건너와 경성에서 활동하다가, 1918년부터 30여년간 전남과 광주의 교육기관에 근무하였다. 주로 현재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보통학교', '심상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해당하는 '실업학교' 등에서 근무하면서 조선교육의 현황을 『조선교육에 안주하여(朝鮮教育に安住して)』(1927년)로 출간하였고, 이어서 당시에 주목받던 심신(心身)의 전인교육을 수용하여 '광주식 작위교육'이라고 이름 붙이고, 『작위교육의 건설과 귀추(作爲教育の建設と歸趨)』(1931년)로 출간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선의 현지 사정을 교과내용으로 삼은 『(광주)향토독본(郷土讀本)』(1937년)이라는 교재를 편집하였고, 또한 자신이 교장으로 있던 광주중앙심상고등소학교에서 실제로 시행하였

* 이 논문은 2019학년도 조선대학교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던 교육과정을 『우리 학교 체육에 관한 종합연구(我が校体育の總合研究)』(1938년)라는 서명으로 발간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4권의 저술 중, 앞의 두 권을 발굴하고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특히 야스다가 ‘광주식 작위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정리한 교육내용을 개략적 이나마 소개하여, 차후 일본 강점기 재조 일본인 교육자들의 교육활동이 본격적으로 조명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일본인 교육자들의 조선에서의 교육활동을 고찰함은, 우리 근대교육 시발점의 교육 활동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또한 국권 회복 이후의 초기 한국교육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없어서는 안 될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나아가 일제 강점기의 교육관련 저술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은 한반도 미래교육의 방향잡기에 좋은 가이드라인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야스다 야스노리(安田保則), 일본 강점기, 광주식 작위교육, 교육관, 조선교육

1. 머리말

21세기 한국교육의 현주소를 조감하면서 미래 교육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공간적 비교 고찰과 시간적 비교 고찰이 필요하다. 공간적으로는 같은 동아시아의 한자문화권에 속하는 중국이나 일본과의 비교가 절실하고, 시간적으로는 한반도의 근대 초기부터 현재까지 시간의 흐름을 단계별로 비교하는 것도 시급하다. 이런 시간적 추이를 방법론으로 선택할 경우 근대교육의 시발점에 해당하는 일제 강점기 전후의 교육 활동에 관한 이해는 선결 조건이 된다. 특히 그 시기에 이루어진 재조(在朝) 일본인의 교육 저술 및 교육활동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은, 국권 회복 이후의 초기 한국교육을 이해함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라고 생각한다. 또한 일제 강점기의 교육관련 저술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은 한반도 미래교육 방향잡기에 좋은 가이드라인 중의 하나가 될 것이 분명하다.¹⁾

하지만 현재 이러한 일제 강점기 재조 일본인 교육자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이는 재조 일본인 교육자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사료 발굴 및 소개가 적기 때문이고, 그에 따라서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단지 정재철이 정리한 『한국에서의 일제식민지시대 교육사 연구 동향』²⁾은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글을 교육했던 교육자의 동향 및 일본의 식민지교육 정책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다루려고 하는 일본 강점기 광주지역 교육기관에 근무하였던 일본인 교사 야스다 야스노리(安田保則), 1885~?)의 교육활동과 저술에 관한 자료 발굴 및 소개는 아직까지 조명받지 못하던 분야라고 말할 수 있다. 야스다가 광주에서 교육활동을 하던 이 시기에 재조 일본인 교사들은 조선교육에 관하여 적지 않은 저술을 남겨놓았지만, 그 저술의 의의(意義)를 밝히는 연구는 고사하고, 아직까지 어떤 저술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도조차도 불분명한 상태이다.

필자는 2015년 여름, 광주교육대학교 김덕진 교수님으로부터 광주에서 30여년간 근무한 교육자 야스다 야스노리에 대하여 발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³⁾ 그런데 발표문을 준비할 문헌자료가 거의 없고, 단지 신문이나 교육기관에 남아있는 기록을 통하여 연보 자료가 정리되어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필자는 막막하지만 우선 한국의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과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자료실을 검색하면서 4권의 책을 찾았다. 첫 번째 책은 광주 무등산 기슭에서 저술하였다고 하는 『조선교육에 안주하여(朝鮮敎

1) 일본 강점기에 제도권의 근대교육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이만규, 『조선교육사(下)』, 서울: 을유문화사, 1948; 오천석, 『한국신교육사』, 서울: 현대교육총서출판사, 1964; 尹建次, 『朝鮮近代教育の思想と運動』, 東京: 東京大學出版部, 1982; 鄭在哲, 『日帝의 對韓國殖民地敎育政策史』, 서울: 一志社, 1985; 孫仁銖, 『韓國敎育史』, 서울: 문음사, 1987; 한국교육연구소 편, 『한국교육사: 근·현대편』, 서울: 풀빛, 1993; 서울대학교연구소, 『한국교육사』, 서울: 교육과학사, 1997; 정혜정, 『1920, 30년대 한국근대교육사상의 전개와 그 평가』, 『한국교육사학』 22(2), 2000.

2) 정재철, 『한국에서의 일제식민지시대 교육사 연구 동향』, 『한국교육사학』 22(2), 2000.

3) <일본강점기 일본인 교사의 광주역사 연구>(2015년 9월 10일,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매체관에 대하여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 주최한 제13회 학술심포지엄.

育に安住して)』(大阪屋號書店, 1927년)이고⁴⁾, 두 번째 책은 『작위교육의 건설과 귀추(作爲教育の建設と歸趨)』(郁文書院, 1931년)이고,⁵⁾ 세 번째 책은 야스다가 편집한 『(광주) 향토독본(郷土讀本)』(광주 공립 심상(尋常) 고등 소학교 발행, 1937년)이고,⁶⁾ 네 번째 책은 야스다가 편집과 발행인으로 서문을 쓴 『우리 학교 체육에 관한 종합연구(我が校体育の綜合研究)』(광주중앙심상고등소학교, 1938년)이었다.⁷⁾ 이 네권의 저술 중 『향토독본』은 광주 박물관에서 편성한 자료집에 들어 있는 관계로 당시 류시현 교수가 발표하였고, 또 연구 결과물이 나와 있다.⁸⁾ 하지만 나머지 3권에 대해서는 필자가 처음 소개하였고, 늦게나마 본고에 그 결과물을 보고하고자 한다. 이 보고가 차후 재조 일본인 교육자들의 교육활동을 조명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우선 본고는 야스다 야스노리의 광주에서의 교육활동과 저술에서 보이는 인물됨을 그리는 것에 주력할 것이다. 다음에 야스다의 첫 번째 저술인 『조선교육에 안주하여』를 통하여 일본인 교육자가 본 당시 조선의 교육환경 및 그의 교육이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저술인 『작위교육의 건설과 귀추』를 통하여 야스다가 조선교육에 도입하려고 한 전인교육의 교육방법론을 살펴보고자 한다.⁹⁾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우리는 근대기 조선교육에서 일본인 교육자의 역할과 한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4) 현재 고려대 도서관, 서울대 도서관, 국회도서관(<http://www.nl.go.kr>)에 소장되어 있음.

5) 일본 국립 국회도서관의 디지털 콜렉션(<http://ndl.go.jp>)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음.

6) 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음.

7) 국립중앙도서관(<http://www.nl.go.kr/nl/>)에 소장되어 있음.

8) 류시현, 「1930년대 재조 일본인의 광주인식 - 『(광주) 향토독본을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 59,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6, 3면.

9) 『광주향토독본』과 『우리 학교 체육에 관한 종합연구』는 본고와 성격이 조금 다른 저술이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 광주지역의 실제적 교육활동의 연구로 차후에 별도의 논문에서 소개할 예정이다.

2. 교사 야스다 야스노리의 교육경력과 교육저술

야스다 야스노리(安田保則)는 1885년 일본의 이시카와(石川縣) 노미군(能美郡)에서 출생하였고, 이시카와현 사범(師範)학교를 졸업한 인재였다. 일본의 사범학교는 1872년(明治 5년)에 발포된 『학제(學制)』에 따라서 소학교 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동경 사범학교 설립을 필두로 하여 1875년에는 동경에 여자사범학교가 설립되어 남녀 차별 없이 소학교 교원양성을 목표로 하였지만, 졸업생 수가 너무 적어서 교육경험이 있는 번교(潘校), 데라코야(寺子屋), 사숙(私塾) 등의 교육지는 물론이고, 읽고 쓰기가 가능한 사무라이, 승려, 신관(神官) 등에게 새로운 교칙(教則)과 교수법을 강습한 뒤, 임시로 소학교 교원으로 발탁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였다.¹⁰⁾ 따라서 사범학교를 졸업한 야스다는 초등교육에 정통한 교육자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1915년 조선총독부의 공립학교 훈도(訓導)가 되어서 조선으로 건너왔다. 처음에는 경성에서 살았지만, 3년 뒤 1918년에는 전라남도 벌교 공립보통학교 훈도로 근무하였고, 이후 국권이 회복되는 1945년까지 호남지역 특히 광주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하였다. 가족은 부인 야스다 시즈에(安田靜江)¹¹⁾ 사이에 1남 2녀의 자녀를 두었고¹²⁾, 광주 부동정(不動町)에서 살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그의 구체적 교육 경력에 대해서는 <표 1>에 정리 하였다.

10) 小川哲哉 외 3명, 『近代學校制度の構築と展開』, 『日本の教育の歴史を知る』, 東京: 青簡舎, 2012, 18~19면; 仲新監修, 『學校の歴史 第5卷 教員養成の歴史』, 第一法規, 1979.

11) 1893년 8월 출생. 군마현(群馬縣) 출신. 곤도신로지로(近藤晋二郎)의 딸. 미야시로(宮城)현립 제일고등여학교 졸업.

12) 장녀는 야스다 요시코(安田淑子, 1922년생)는 광주 고등여학교 재학. 장남 야스다 야스유기(安田保之, 1924년생), 차녀 야스다 도모코(安田智子, 1933년생).

〈표 1〉 야스다 야스노리의 재조 교육활동 연표

연도	나이	경력사항
1915	30	조선총독부 공립학교 훈도(訓導) ¹³⁾ 가 되어 조선으로 옴
1918~1919	33~34	전라남도 별교공립보통학교 훈도
1920	35	나주공립보통학교 훈도
1921~1924	36~39	광주공립보통학교 훈도 겸 전라남도 임시교원양성소의 주임강사
1924	39	전라남도 내무부 학무과 시학(視學) ¹⁴⁾
1925	40	전라남도 공립 사범(師範)학교 교유(教諭) ¹⁵⁾ 전라남도 내무부 학무과 시학
1926~1927	41~42	광주고등보통학교 교유
1927	42	전라남도 내무부 학무과 시학 <朝鮮教育に安住して> 출간
1928	43	광주고등보통학교 교유 전라남도 내무부 학무과 시학
1929	44	광주고등보통학교 교유 광주보통학교 교유 전라남도 내무부 학무과 시학
1930~1931	45~46	광주 심상(尋常)고등소학교 훈도 <作爲教育の建設と歸趨> 출간
1932	47	광주 상업실수(商業實修)학교 교유
1932	47	광주 심상(尋常)고등소학교 훈도겸 광주소학교장 <문교의조선>에 『學校教育に對する私の態度』 게재
1933	48	광주 상업실수학교 교유 광주 심상고등소학교 훈도
1934	49	광주 상업실수학교 학교장 광주 심상고등소학교 훈도

13) 훈도(訓導): 훈도는 일제 강점기의 교육제도에서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보통학교(普通學校), 심상소학교(尋常小學校)의 정규 교원의 한 직급임. 현대 일본의 교육제도에서는 교유(教諭)라는 명칭으로 전환함.

14) 시학(視學): 일본의 1945년 이전 구제도에서 지방교육을 담당하던 행정관. 시시학(市視學)·군시학(郡視學) 등이 있었고, 학사업무의 시찰 및 교육지도를 담당함.

15) 교유(教諭): 구 교육제도에서는 중등학교의 교원을 말하고, 현재는 교육직원면허법(教育職員免許法)에 의거하여 보통면허(普通免許)를 가지고 학교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1935	50	광주 상업실수학교 학교장 광주 심상고등소학교 훈도
1936	51	광주 상업실수학교 학교장 광주 심상고등소학교 훈도
1937	52	광주 상업실수학교 학교장 교육공로자, 전라남도 광주공립심상고등소학교장 겸 광주공립 상업실습학교장. <光州郷土讀本> 발간 광주 심상고등소학교 훈도
1938	53	광교 중앙 심상고등소학교 부설 유치원 훈도 <我が校体育の綜合研究> 발간 광주 상업실수학교 훈도 광주 중앙 심상고등소학교 훈도
1939	54	광주 중앙 심상고등소학교 부설 유치원 단장 광주 상업실수학교 훈도 광주 중앙 심상고등소학교 훈도, 광주공립소학교장
1940	55	광주 상업실수학교 교유
1943	58	공립 실업학교 교장 겸 공립실업학교 교유 공립초등학교 훈도 겸 실업학교 교장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야스다는 30세부터 58세에 이르기까지 조선, 특히 전남·광주지역에서 교육 행정가 및 유아교육·초등교육과 실업교육, 그리고 교원양성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특히 그는 전남지역의 학교 업무를 총괄한 시학(視學)을 역임하였고, 전남 도청 소재지 제1번의 일본인 학교 교장을 역임하였다. 『조선교육에 안주하여』를 집필하는 것은 그의 나이 40이 막 넘어선 1927년 즈음이다. 이 시기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대정(大正) 신교육운동 시기이다. 1919년(大正 8년)에 경제발전과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주의적 국민교육이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고 동시에 재야(在野)에서는 민주주의적·평화주의적 사회개혁 운동을 염두에 둔 다양한 교육개혁 운동이 전개되었다. 일본 전국에서 우수한 교육실천을 전개하고 있던 교사들이 ‘아동중심주의’ 특히 아동의 자율학습을 중시하는 교육방법을 전개하였지만, 1923년(大正 12년) 관동대지진 이후 치안대책으로 사상통제를 강화하였고, 이윽고 1925년에는 육군 현역 장교를 학교에 배치하면서 급

속하게 보급되던 민주주의라든가 사회주의 사상을 배경으로 하는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을 억압하였다. 교육에 대한 군부의 개입과 국민에 대한 정부의 사상통제는 1931년 만주사변을 거치면서 ‘국체명징(國體明徵)’이라는 슬로건 아래 더욱더 교육쇄신을 압박하였다. 1926년(大正 15년·昭和元)에는 제국대학의 교수, 학생들에 의한 마르크스주의 사회과학연구회, 『전일본학생사회과학운동연합회』 등의 활동에 대하여도 치안유지법을 적용하여 탄압하는 사건이 일어났다.¹⁶⁾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스다는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30대 초반에 조선으로 건너와 교육자의 길을 걸으면서 『조선교육에 안주하여』를 집필하였던 것이다. 당시 그는 전라남도 내무부 학무과 시학(視學)의 일을 담당하던 교육행정가로서 활동하였다. 이 책은 전체 분량이 423쪽에 이르고, 야스다가 자신의 교육관에 입각하여 당시 조선의 교육환경, 세태, 민정(民情)을 조사하고 정리하였다. 그는 일본에 있거나, 조선에 와 있는 일본인들 중 조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많을 뿐만 아니라, 조선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조차도 조선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실정을 직면하고 이 책을 집필하였다고 한다.¹⁷⁾ 그는 이 저술을 읽은 사람들이 조선과 일본의 양쪽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양국의 교육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하였다. 저술의 내용적 특색에 대해서는 장을 바꾸어 서술하기로 한다.

16) 일본의 쇼와(昭和) 전기 및 전시 체제하의 교육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참조된다.

田啓夫他編著, 『日本の教育の歴史と思想』、ミネルヴァ書房, 2002; 唐澤富太郎, 『教師の歴史 教師の生活と倫理:典型的教師像』, ぎょうせい, 1989; 石川松太郎他著, 『日本教育史』, 玉川大學出版社, 2001; 三好信浩篇, 『日本教育史』, 福村出版, 1993; 土屋忠雄篇, 『概説近代教育史-わが國教育の歩み-』, 川島書店, 1967; 仲新他編, 『日本近代教育小史』, 福村出版, 1984; 文部省, 『學制百年史』, 1972.

17) 조선총독부는 문부성 교과서를 사용하는 재조 일본인 아동들을 위해 다양한 보충교재를 편찬했다. 이런 정책으로 야스다 야스노리와 같은 저술이 각지에서 행하여졌지만 그것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다(立柄教俊, 『심상소학교 보충교재에 대하여』, 『조선교육』 64, 1921; 김광식·이시준, 『재조일본인 아동용 『심상소학교 보충교본』의 내용과 그 성격』, 『일본언어문화』 24, 한국일본언어문학학회, 2013, 431면에서 재인용).

두 번째 저술인 『작위교육의 건설과 귀추』는 야스다가 46세 되던 1931년에 간행되었다. 이 책은 야스다가 광주리는 지방 소학교에서의 교육경험에 근거하여 이전의 지식중심 교육을 지양하고 대신에 작업주의 교육을 강조하기 위하여 저술한 것이다. 즉 야스다가 40대 중반까지 전라남도 내무부 학무과와 광주고등공립심상소학교¹⁸⁾ 등에 근무하면서 새로운 교육론으로 부상한 ‘작위교육’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고 연구에 몰두한 결과이다. 이 책을 저술한 이후, 그는 실업학교에서도 근무하고 있다. 특히 그는 이 책에서 ‘광주식 작위(作爲)교육’을 제의하고 있으며, 책은 상하 2편으로 구성되고 전체 분량이 585쪽에 이른다.

‘작위교육’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미(歐美)의 신교육운동이 일본에 수용되어 교육적으로 실천되는 과정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19세기 말 영국에서 시작하여 독일, 프랑스로 보급된 전원학교 계열에서는 전통적인 라틴어나 그리스어와 같은 고전어 교육 대신에 노작교육(勞作教育)과 자율적 교육활동을 중시하는 교육 스타일로 전환하였다. 특히 일본은 미국의 존 듀이가 시카고 대학 부설의 실험소학교에서 시행하였던 작업교육을 받아들였다. 교사와 교과서 중심의 전통적 교육이 아닌, 아동들의 자발성을 중시하는 혁신교육 이었던 것이다. 이런 교육은 독일의 교육학자 게르센슈타이너(Kerschensteiner)의 저작인 『노작학교의 개념』(1912)에서 제창된 것이다. 책 중심의 주입식 교육이 아닌 수작업(手作業)을 통한 체험학습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세 번째 저작이 광주 현지 사정을 소상하게 담고 있는 『(광주) 향토독본』의

18) 광주고등공립심상소학교는 1097년 6월 광주 거주의 일본인이 교육조합을 결성하여 세운 소학교이다 (『향토독본』 8면). 정현진은 「한말 일제기의 광주·전남 지역 근대 학교 연구」(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에서 이 학교는 재조 일본인 자녀의 정규 초등교육 기관으로 정식 출범하였다고 평가한다. 이 학교는 1914년 광주 궁동으로 이전하였는데, 1917년 당시 학급 수는 7개, 교원 수 8명, 학생 수 336명, 졸업생 수 146명이었다(北村友一郎, 『광주지방사정』, 용야서점, 1917;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실, 『일제 강점기』 광주 문헌집,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2004, 85~86면 참조).

편집이다. 이 책은 야스다가 52세 때, 실업학교의 교장이면서 광주 심상(尋常)고등소학교의 훈도(교장 겸임)를 하던 시기에, 광주공립 심상(尋常)고등소학교에서 발행한 책이다. 분량은 130쪽이고, 1930년대 중후반 광주를 소개하여 학생들에게 향토를 이해시킬 뿐만 아니라, 광주에 애정을 갖게 하기 위하여 비매품으로 출판하였다고 한다. 이 책은 그 당시 재조 일본인들의 인식의 단면을 확인 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러한 저술들의 특징은 저술내용 범주가 조선이라는 광역범주에서 차츰 광주라는 지역범주로 좁혀지면서 구체화되고 세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야스다의 재조(在朝) 교육경험이 축적되면서 이론적인 저술에서 경험 집약적인 저술로 귀납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단지 이 저술에 대해서는 류시현의 연구를 참조하기를 바라면서 본고에서는 논술하지 않고, 새로운 논문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네 번째 저작은 야스다가 교장으로 있던 광주중앙심상고등소학교에서 실제로 시행하였던 체육 교육내용과 그 교육과정을 『우리 학교 체육에 관한 종합연구(我が校体育の総合研究)』라는 서명으로 편집하여 발행한 것이다. 책의 전체 분량은 390쪽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이고, 당시의 학교 체육활동을 소상하게 정리하고 있어서 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살펴보지 못하고 새로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한다.

3. 『조선교육에 안주하여』를 통하여 본 조선의 교육환경

일본은 1871년(明治 4년) 폐번치현(廢藩置縣)에 의해 새로운 중앙집권체제를 성립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1872년(明治 5년)에 최초의 근대학교제도를 규정하는 「학제」(전체 213장)를 반포하였다. 이 「학제」의 행정체제는 프랑스의 중앙집권적 제도를 채용하고, 학교체계와 내용 면은 미국의 경험주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후 일본에서는 초등교육이 전격 실시되었다. 이것은 근대사회로의 진입이라는 정치제도 개혁을 실시하면서, 그와 동시에 교

육제도 개혁도 동반하였다는 의미이다. 정치와 교육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시행된 근대교육은 유럽의 교육제도, 특히 초기에는 영국식의 귀족교육 제도와 독일의 주지주의(主知主義) 교육제도를 받아들여 토대로 삼았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중심 교육은 소수의 선택받은 학생만이 교육 수혜자가 되는데 그치기 때문에, 늘어난 일반 대중의 교육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이에 초등교육을 실시한지 60여 년이 지난 1930년대에는 일본의 제국주의 확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의무교육 체제가 정립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이 시기에는 추상적 개념 위주의 지식교육보다는 경험에 근거한 실천 중심의 구체적이며 전인적인 작업교육으로 방향이 전환 되었다.

야스다는 1910년 이전까지의 조선 교육은 한마디로 ‘유교교육’이라고 단언하였다.¹⁹⁾ 유교적 교육기관으로는 중앙의 성균관(成均館), 지방의 향교(鄕校), 그리고 서울에만 있었던 사학(四學) 제도가 있는데, 모두 국비운영이며²⁰⁾, 이들 교육기관의 교육이념은 유교적 교양을 테스트하는 과거(科擧)제도를 거쳐 입신출세하는 것이라고 소개한다. 한편 이들 유교적 교육기관의 특징은 공자(孔子)에게 제사를 올리는 문묘(文廟)가 있다는 점인데, 춘추(春秋)에 거행되는 석전(釋奠)은 중국의 문묘, 일본의 유시마(湯島) 성묘(聖廟)에서도 거행되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조선의 경우는 19세기 신교육이 보급되는 상황에서도 석전이 중지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그만큼 당시 조선의 유교교육이 강력하였다는 것이다.

일본은 조선을 강점하기 이전인 1894년(明治 27년) 청일전쟁 즈음에도, 조선 정부에게 <혁폐시의(革弊時宜) 5개조>를 제출하고, ‘학제(學制)를 완비하여 인재 양성에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야스다는 이러한 일본 오오도리(大鳥)공사의 요구사항을 조선의 국민교육을 부흥시키기 위한 제안이라고

19) 安田保則, 『朝鮮教育に安住して』, 大阪屋號書店, 1927, 70면.

20) 향교에는 관(官)에서 토지를 주어서 그 수입으로 경영함. 그것이 오늘날 이른바 ‘향교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²¹⁾ 그는 근대적 교육기관을 세워 인재를 양성하는 길만이 낙후된 조선교육을 개선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일본의 조선 강점을 합리화시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당시 조선 국왕은 <혁명시의 5개조>의 제안을 받아들여 갑오혁신(甲午革新)을 단행하고, 향교와 성균관을 학무이문(學務衙門) 소관으로 변경하고, 과거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관리등용법을 만들고 또 소학교 교과서를 편찬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어서 1895년(明治 28년)에는 일본의 소학교령(小學校令)을 모방하여 조선에 ‘소학교령’을 발표하였고, 8월에는 교칙대강(敎則大綱)을 발표하였다. 야스다는 이러한 교육제도의 변화를 소상하게 소개하고 있다. 특히 소학교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첨부하고 있다. 관립·공립·사립 3종류의 소학교가 있고, 사립소학교는 관찰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지만 경비는 국고 또는 지방비의 보조를 받는다고 설명한다.²²⁾ 하지만 이런 변혁은 당시 조선의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은 급진적 계획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실시되지 못하였다. 비록 신교육 교육과정은 마련되었지만, 실제로는 한적(漢籍)과 습자(習字)를 학습하는 수준이었다. 당연히 학급 편제라던가 교사(校舍)의 시설도 서당과 다를 바가 없었다.²³⁾

더욱이 ‘중학교령’에는 중학교를 설치할 경우, 향교를 교사로 활용하라는 법령이 들어 있었다. 실제로는 경성의 관립 중학교 한곳만이 향교를 활용하는 데 그치고, 지방의 경우는 이전과 다름없이 향교로 남아 있었고, 서당도 여전히 1만교 이상이나 남아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교육상황은 1906년(明

21) 安田保則, 앞의 책, 72면.

22) 소학교는 3년간 수학하는 심상과(尋常科)와 2년(3년) 수학하는 고등과(高等科)로 나누고, 학령(學齡)은 만 7세에서 만 15세까지로 하였다. 부군(府郡)은 의무교육의 정신에 입각한 공립 소학교를 설치하도록 하고, 일본어를 외국어로서 교육하도록 하였다.

23) 경성에 관립의 고등소학교 1교, 심상소학교 8교, 지방(주로 경기도)에 공립심상소학교 57교가 있었다. 학생 수는 1학급당 10명 내지 50명 정도이고, 사립 소학교는 공립보다 숫자적으로 많았지만, 그 내용은 서당과 다를 바 없었다. 이 외에 미국이나 프랑스 선교사가 경영하는 종교학교가 100교 이상 있었고, 일본인이 만든 학교도 각지에 있었지만, 시설은 서당과 비슷하였다.

治 39년)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통감으로 경성에 체제 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토의 개혁방침은 학제(學制)와 과정(課程)은 간단하게 하면서도 실용에 맞게하고, 특히 초등교육에 해당하는 ‘보통교육’의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1910년 강점하기 이전까지 각급 학교의 교장은 형식적으로 한국인이었지만, 한국 교사들의 교육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본인 교사가 중학교에는 학감(學監)으로, 보통학교에는 교감(校監)으로 파견되었다. 일본인 교사가 담당하였던 교감(校監)은 일본이 학교교육을 장악하기 위한 장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현재의 학교 조직에도 일본 강점기의 체제인 ‘교감’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1910년 일본이 강점한 이후 총독부가 가장 먼저 착수한 업무는 교육쇄신이였다. 명분은 일본 내지(內地)와 차별 없는 교육내용과 교육시설을 조선에 실시한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일본어를 보급하고 조선 민족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토대 조성이였다.²⁴⁾ 1911년 ‘조선교육령’에서 보통교육, 실업교육, 전문교육으로 나누고, 특히 실용주의 교육을 강조하였다. 교장은 일본인 훈도 중의 한사람이 겸하고, 향교재산의 수입을 학교경비로 사용하게 하였다. 하지만 1919년 3·1운동 이후, 유림(儒林)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향교재산의 사용을 중지하고, 보통학교의 수업연한도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보통학교를 3면(面) 1교(校) 수준으로 증설할 것을 약속하게 되었다.

야스다는 1922년의 ‘조선교육령’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그는 ‘내선(內鮮) 공통의 정신’에 입각하여 조선에서도 사범교육, 실업교육, 전문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특별히 주시하였다. 이와 같은 식민지에서의 고등교육 강화는 세계 어떤 국가에서도 시행한 적이 없는 일이라고 한다. 이런 새로운 교육령에 의해서 조선의 교육에서는 일본인과 조선인의 차별이 없어지게 되었다고 강조한다. 즉 인종적 차별을 없앴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조선에서 근무하는 일본인 교육자로서 식민통치 하의 인종적 차별 교육에 대해 비판적

24) 한일병합 할 때의 보통학교수는 관립 1교, 공립 59교, (재정)보조지정교 41교, 도합 101교로 아동수는 1만6천9백4십6인이었다.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차별적 교육이 잔존하였다. 그 이유를 야스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다만 조선에 살고 있는 국민은 실제로 일상생활에 국어(일본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 풍습 습관 등에서 또한 같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보통교육에서는 완전히 동일한 제도를 시행하고, 또 주의(主義)로서 공학(共學) 즉 혼합교육을 실행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서, 보통교육에 한하여 국어(일본어)를 사용하는 학생은 소학교(小學校)·중학교 또는 고등여학교에 나아가고, 국어(일본어)를 사용하지 않는 학생은 보통학교·고등보통학교 또는 여자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본체로 삼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서로 바꾸어 입학할 수 있도록 한다.²⁵⁾

새로운 교육령에 의한 차별교육은 이전의 인종적 구별이 아닌, 상용언어에 의해 구별하였다고 한다. 일본어 사용자는 ‘소학교 ⇒ 중학교/고등여학교’의 과정을 거치고, 한국어 사용자는 ‘보통학교 ⇒ 고등보통학교/여자고등보통학교’의 과정을 거친다.²⁶⁾ 야스다는 위와 같은 구별은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라기보다는 상용언어에 따른 구별이라고 구차하게 부연 설명을 한다. ‘내선(內鮮)공통’의 정신에 입각한 교육이라는 슬로건이 허명(虛名)이었음을 드러내는 증거이기도 하다.

일본에서 자본주의가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시점에 교육을 받았던 야스다는, 교육의 진보는 교육재정의 충당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경제발전이 뒷받침할 때만이 교육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제기된 것이 조선인에게 실용적인 실업교육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교육관이다. 야스다가 이 책에서 당시의 교육상황을 리얼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오늘날의 한국 상황에서도 참조할 것이 많다. 우선 조선의 전통 교육관의 문제점이다. 전통적으로 학문을 하는 사람은 주로 양반의 자

25) 安田保則, 앞의 책, 93면.

26) 대학교육과 사범교육은 일본어와 한국어의 공용으로 운영되었다.

제들이었고, 그들의 수학(修學) 목적은 한결같이 입신출세라는 점이다. 따라서 부형들은 교육이란 관리가 되기 위한 수단일 뿐, 인간다운 기초를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자본주의 사회에 필요한 실업을 배척하고 천하게 여기고, 양반이라는 사회적 지위와 명예 유지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런 결과 실업학교 졸업생조차도 실업교육의 목적인 실업 중시는 기피하고, 봉급생활이나 말단 관직에 들어가길 선호하는 풍조가 형성되었다고 한다.²⁷⁾ 이런 직업관과 교육관으로 초·중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중에는 거의 가정에서 무위도식하면서 지내는 사람이 많다고 개탄하였다. 이러한 졸업생들을 성실한 직업인으로 자립시키는 것이 야스다의 실업교육관이었다.

일본은 강점 기간 내내 전시(戰時) 준비의 일환으로 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에서 이른바 ‘근로작업주의’ 교육을 실행하였다.²⁸⁾ 하지만 1919년 3·1운동 이후 이러한 일본의 실업 중시 교육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일어나 실과(實科)의 수업시간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거나 삭감되었다. 하지만 조선의 경제 사정은 날로 악화 일로에 놓여있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야스다는 ‘근로작업주의’ 교육을 권장하였다. 여기서 강조하는 ‘근로작업주의’ 교육은 독일의 게르셴슈타이너(Kerschensteiner)와 리츠스만 등이 창도하였던 것이고, 일본에서는 모리오카(三岡)에 의해서 1900년대에 소개되었다.

야스다는 ‘근로작업주의’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의지(意志)를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국권상실의 암울한 시기에 학교를 졸업하고도 무위도식하는 조선의 학생들이 삶에 대한 모티베이션을 갖도록 교육하는 것이 교육자의 급선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지식편중의 교육만으로는 조선이 처한 곤란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보았던 야스다는 강한 의지력의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근로주의 교육’ 또는 ‘실업주의 교육’을 강조하는 교육방침을

27) 安田保則, 앞의 책, 121~124면 참조.

28) 문지은, 「1930년대 일제의 향토교육론과 향토교육 시책」, 『역사교육』 146, 2018, 300~301면 참조.

표방하였다.²⁹⁾ 그는 인심(人心)의 안정은 우선적인 경제생활의 안정에서 얻어진다고 보았다. 이는 중국 ‘축의 시대’에 맹자가 주창하였던 ‘왕도정치론’을 떠올리게 하는 경제관이다. “백성은 생업(恒産)이 있어야 변치 않는 도덕심(恒心)을 갖는다³⁰⁾”는 전통적인 ‘민본주의’ 정치경제관이 면면이 이어져 야스다의 실업중심 교육관의 토대가 되었다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야스다는 실업교육이야말로 ‘충량(忠良)한 국민 육성’이라는 조선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보았다. 교육을 통하여 집을 잘 경영하고(齊家), 생활이 안정되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보이고 있다. 당시 조선의 젊은이들은 현실적으로 국권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으로서의 안정감을 잃었고, 또 생업도 없이 불안정한 개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조선에서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점을 세심하게 주의하여 학생들이 현재와 미래에 지향할 목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야스다의 교육관은 조선에서 오랜 기간 교육에 종사하면서, 교육이 조선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는 것인가를 고민한 결과에서 나왔다고 하겠다.

『조선교육에 안주하여』의 구성과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 문화와 교육과의 관계: 문화의 의미를 기술하고, 문화는 교육으로 발전한다는 입장을 피력함.

제2장 인생관과 교육: 인생이 곧 생활이라고 정의하면서, 보편적 자아와 개별적 자아를 통한 자기 이해를 제시하고, 이기(利己)와 이타(利他)의 차이, 자율(自律)과 타율(他律)의 차이를 통하여 인생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함.

제3장 ‘한일병합’³¹⁾과 교육: ‘병합’의 전말(顛末)을 소상하게 기술한 뒤, 병합

29) 1927년부터 중학교 및 고등보통학교에 근로교육을 필수적으로 설치하라는 규정이 만들어졌다.

30) 『孟子』梁惠王 上篇.

31) ‘한일병합’은 책의 본문을 인용한 것임. 다른 곳에서는 ‘일본 강점’으로 사용함.

에 의해 조선인의 생활이 좋아졌음을 피력하고자 하였다. 특히 병합의 정신에 대해서 조선인의 오해가 많기 때문에, 병합의 진정한 의의를 교육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고 함.

제4장 조선교육의 회고와 목표: 병합 전의 교육과 병합 후의 교육을 비교하고, 개혁을 통하여 구제도를 혁신할 것을 제안함. 병합 전후의 소학교에서의 교육상황을 설명하기 위하여, 일본인들이 운영하는 학교조합 활동 및 학교 조합비, 그리고 재정적 학교비용의 부담 관계를 기술하고, 근로작업주의(勤勞作業主義) 교육과 실과(實科)교육을 적극 실시할 것을 권장함.

제5장 환경과 교육: 환경에 순응하는 생물,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는 인심, 환경의 영향, 자율적 학습법의 권장과 환경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제시함.

제6장 교육환경으로서의 사회: 사회계급의 구별, 덕성 및 풍습의 장단점, 문묘(文廟), 교육과 사찰, 민중의 오락 등에 대하여 설명함.

제7장 조상숭배와 교육: 조선의 가족제도와 조상숭배의 풍습을 소개하고, 일본의 양자제도 및 신사(神社)의 의의와 조선 신궁(新宮) 조성의 취지를 설명함.

제8장 혼인(婚姻)의 교육적 고찰: 혼인이라는 글자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혼인의 의의, 혼인의 요건, 혼인형식의 변천, 혼인과 그 의식, 혼인의 심리, 중매와 이혼과 일부다처에 대하여 설명함.

제9장 여성 교육관: 인격주의와 현모양처주의의 차이, 여성 교육의 보급과 발달, 부인의 직업에 대하여 설명함.

제10장 동맹휴교관(同盟休校觀): 일반 사상계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동맹휴교에 들어가는 감정문제와 여론의 지도자에 대하여 거론하고, 동맹휴교의 원인과 그 예방책을 제시함.

제11장 사도관(師道觀): 교육자의 인격수양, 훈도관(訓導觀), 교장관(校長觀), 교원의 자세에 대하여 개진하고, 이어서 교사와 상식, 우수한 인재, 취미와 오락, 자신의 배양을 위한 노력, 봉급과 임금, 보수와 진보의 차이 등을 설명함.

제12장 훈련에 관한 사항: 훈육과 혁신의 필요성, 사랑으로 하는 훈련, 과도기의 어려움에 대하여 설명함.

제13장 교수(教授)와 학습에 관한 사항: 교육의 정의 및 시행착오에 의한 학습을 설명한 뒤 수신과(修身科)의 학습지도, 읽기의 학습지도, 글짓기

의 학습지도, 서예의 학습지도, 산술과(算術科)의 학습지도, 역사과의 학습지도, 지리과의 학습지도, 이과(理科)의 학습지도 등, 각 과목에 대한 학습지도상의 결합과 주의사항을 설명함.

제14장 잡(雜): 자유 평등 박애에 관한 기술, 요시다(吉田)박사의 수신(修身)에 관한 강습에 대한 시찰과 비평회, 국가탄생일에 대한 소감을 기술함.

이상과 같이 이 책은 전체가 14장으로 이루어졌다. 내용상으로는 크게 세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일반교육론을 기술한 1장, 2장, 5장, 9장, 11장, 12장, 13장, 14장이고, 둘째는 교육을 둘러싼 조선의 현실을 기술한 6장, 7장, 8장, 그리고 셋째는 일본의 식민통치와 그 교육적 가치를 다룬 3장, 4장, 10장이다. 이중 셋째 부분의 일본의 식민지 경영에 관한 주제는 일본연구의 보편적 주제로 이미 다른 자료의 연구에서도 많이 주목받아왔다. 하지만, 일본인 교사가 소개하는 조선의 교육 상황 및 교육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더욱이 야스다의 이 저술은 일본강점기 조선의 교육 및 광주지역의 교육상황을 이해하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야스다의 교육 저술 및 교육활동의 고찰을 통하여 당시 재조 일본인 교사들의 교육관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작위교육의 건설과 귀추』를 통하여 본 교육방법론

19세기 말 독일과 미국에서는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다. 주입식 주지주의 교육에서 경험식 '작업교육(manual training)'으로의 전환이었다. 자발적이며 능동적인 작업을 중시하면서 아동(생도)의 전인적 인격형성을 목표로 삼았다. 여기서 '작업'은 실업과(實業科)의 실습, 또는 기구조작, 야외조사 등을 포함한 다양한 학습활동을 의미한다. 원예라던가 공작 등의 활동을 통하여 필요한 기능 및 습관, 지식을 실제로 학습하게 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루소, 페스탈로찌, 오웬, 마르크스, 게르센슈타이너(Kerschensteiner), 존듀이

등이 작업과 생산노동의 교육적 의의를 강조하였다. 즉 작업교육은 노동교육-근로교육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작업교육의 본래 목적은 작업에 의한 실제적 교육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교육은 야스다가 교육활동을 하던 1920~1940년대에 새로운 교육사조로 일본에 받아들여졌다. 아동의 신체를 통한 체험주의 교육, 전인교육(全人教育)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근로교육-노동교육 또는 ‘작위(作爲)교육’이라고 불려졌다. 이 ‘작위교육’은 독일어의 ‘아르바이트(Arbeit)’를 번역한 말로 수도원의 노동교육을 의미하였다. 당시 기타사와(北澤)는 ‘아르바이트’를 ‘작업(作業)’이라고 번역하였고, 고니시(小西)는 ‘노작(勞作)’이라고 번역하였다. 그런데 야스다는 그것을 ‘작위’라고 새롭게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작위’란, 사전적으로는 ‘적극적인 행동이나 동작’이라고 설명 한다. 어떤 일에 목표의식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 교육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습교육, 생활교육, 직업교육 등의 의미를 총합한 형태라고 하겠다. 즉 당시의 주류를 이루었던 이론 중심의 지식교육에서 탈피하여, 아동의 심신을 조화롭게 육성하기 위한 교육방법이었다.³²⁾

야스다는 당시의 교육을 독일식의 독서에 편중된 독본중심 교육이라고 비판하였다.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귀족적 학습학교 대신에 근로학교(勞作學校, Arbeitsschule), 작업학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으며, 더욱이 일본은 국민전체가 근검 역행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근로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는 당시 일본이 제국주의 확장 선상에서 전쟁을 수행하던 와중이었던 점을 염두에 둔 제안이다. 덧붙여서 야스다는 조선반도의 교육도 근로를 장려하고 작업을 존중하는 것이, 조선의 현실에 부응하는 최선책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러한 근로에 기반을 둔 작업을 통하여 전인적인 인격도야를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작위교육이야말로 이상적 교육에 가깝다고 믿었다.

32) 安田保則, 『作爲教育の建設と歸趨』, 郁文書院, 1931, 7~8면 참조.

‘작위’는 그 후, 마루야마마사오(丸山眞男)가 『일본정치사상사』에서 일본의 정치철을 ‘자연에서 작위어로’라고 규정하였던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연 질서에 대해서 인간이 인위적으로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³³⁾ 야스다는 우선 스위스의 유명한 교육학자인 자이텔의 작위교육론과 게르센슈타이너의 노작교육론, 가우데츠히의 작위교육론, 나로로프의 작위교육론의 특징을 소개한 뒤에 자신의 작위교육론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나의 작위교육은 정신활동인 동시에 신체활동이다. 따라서 작위란 단지 정신적 활동에만 그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정신활동이 근육활동에 의하여 놀이가 되기도 하고 학습 작업이 되기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³⁴⁾

야스다는 교육이란 ‘이상과 현실의 조화’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어린 아동의 교육은 지식 교육에만 치우쳐서는 곤란하고, 아동의 경험을 살려서 온전한 인격을 도야 할 수 있게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야스다의 초등교육론이다. 즉 ‘지정의(知情意)’의 조화로운 발전이 교육목표가 되고, 이를 위해서 신체의 노작(勞作, Arbeit)활동으로 정신(靈)과 신체(肉)가 일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³⁵⁾ 따라서 작업주의, 근로주의, 노동주의, 체험주의가 그의 교육론의 키워드가 된다. ‘작업노작(作業勞作)’이라는 그의 교육이념은, 공동근로와 공동체 생활을 중시하는 일본의 전통적 사유와 맥락을 같이한다. 국민 고유의 정신을 근대 교육이론으로 재조명하여, 협조와 공동협업을 이루어내는 것이야말로 ‘창작-창조교육’이라고 명명(命名)하였다.³⁶⁾ 야스다는 당시 대부분의 교육자들이 외국의 교육이론을 수입하여 맹

33) 마루야마는 에도(江戸)시대의 오규소라이(荻生徂徠, 1666~1728)의 유학사상의 핵심을 근대주의의 ‘작위론’으로 정리하여 일본사상사에서의 근대적 사유의 의미를 규명한 연구자로도 유명하다(丸山眞男, 『日本政治思想史』, 東京大學出版會, 1954(3판), 223~240면 참조.)

34) 安田保則, 전계서, 14쪽.

35) 安田保則, 전계서, 『自序』, 1~2쪽.

목적으로 모방하고 적용하려고 급급하였던 것에 불만을 가졌기 때문에, 일본식 창조교육이야말로 참된 교육자의 사명이라고 주창하였다. 일본 교육의 독창성을 신뢰하고 그것을 초등교육에 접맥하려는 연구를 축적하였고, 그 결과물이 ‘광주식 작위교육’을 제안하는 『작위교육의 건설과 귀추』이다. 이 책의 구성과 내용적 특색은 다음과 같다.

전편(前篇)

- 제1장 총론: 작위교육의 개념 및 교육이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작위교육과 생활표현의 긴밀한 관계성, 분과주의를 타파한 합과(合科)학습과 작업주의 교육학습의 교육관을 제시함.
- 제2장 우리학교에서의 작위교육: 야스다 본인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실시한 작위교육과, 그것을 시행하기 위한 교서관(校是觀), 학교의 강령(綱領) 및 학급경영을 소개함.
- 제3장 저학년의 작위교육: 저학년에서 작위교육이 실시된 유래, 저학년 작위교육의 특징, 학급편제에서 주의할 것, 초보적 학급생활, 작위교육과 환경과의 관계를 제시함.
- 제4장 우리학교 저학년의 작위교육: 작위교육을 시행한 제1회 연구발표, 작위교육 실시의 자취를 돌아보면서 작위주의 연구수업을 소개함.
- 제5장 작위교육과 학습: 자습시간의 설치와 그 의의, 그리고 이동문고의 이용, 교육의 실제화 및 생활화 그리고 향토화를 실시하고, 휴가 및 그 전후 시기의 활용과 특별지도 및 특별지도의 실제 상황을 소개함.
- 제6장 우리학교에서의 교육현황: 1학년에서 실제로 실시하였던 작위교육의 예시를 3개 열거하고, 다음에 2학년에서의 작위교육 현황을

소개함.

후편(後篇)

제1장 우리학교에서의 작위교육: 4·5학년에서의 읽기 지도 및 글쓰기 지도의 실제 예시, 4학년 이과(理科)지도 예시, 5학년 산술지도 예시, 6학년 지리(地理)지도 및 국사(國史)지도 예시, 4학년 재봉 지도 예시, 고등과(高等科) 직업과(職業科) 지도의 예시, 고등과(高等科) 도서(圖書) 지도의 예시를 소개함.

제2장 작위교육과 훈련: 국민정신 함양에 관련된 시설, 내목회(乃木會) 회원의 무등산 등산과 의사회(義士會)의 사냥에 관한 소개, 아동 생일에 대한 교육적 활동, 단오절 민속놀이 시행, 학급회의와 학교회의 활동에 대하여 소개함.

제3장 작위교육과 양호: 체육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 체육 연습회와 학년 대항 계주, 운동회 실시와 그에 대한 반성을 소개함.

이상과 같이 이 책은 전편(6장), 후편(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위교육의 이론을 소개한 뒤에, 야스다가 근무하였던 광주의 심상고등소학교에서 여러 교사들이 실제로 시행하였던 교육활동을 소개하고 평가한 것이다. 이러한 실제자료는 일본강점기 광주의 교육현황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런 실제 수업이 이루어졌던 학교가 일본인 학생이 주로 다니던 곳이었기 때문에 조선인이 다니던 보통학교의 상황은 이 자료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광주식 작위교육의 이상은 지적활동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험과 경험의 활동을 통하여 '지정의(知情意)'의 전인교육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야스다는 주지주의(主知主義)의 학습을 본위로 삼는 종래의 교육에서 야기되는 폐단을 직시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광주식 작위교육을 제안한 것이

다. 특히 일본의 초등교육의 경우는 결코 유럽이나 미국에 뒤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증명할 길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다. 즉 자신의 교육에 대한 이상과 자신이 근무하는 광주고등공립심상소학교에서 실재를 비교하고 대조(對照)한 결과를 계통적으로 정리하여 ‘광주식 작위 교육’이라고 명명(命名)하였다.³⁷⁾

우리 학교의 교육은 작위(作爲)에 의한 교육으로, 신체의 노작(勞作)은 물론이고, 정신상의 작위(作爲)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은 놀이지도라던가 생활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련될 뿐만 아니라, 이른바 근로주의/작업주의의 정신에도 합치하는 것은 물론이다. 우리들은 종래의 교육 위에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첨부하여 참된 교육의 길을 걷고자 염원하는 사람들이다.³⁸⁾

야스다가 작위교육을 강조한 또 다른 이유는, 당시 일본인 초등학교 졸업생 중에서 중학교에 진학하는 비율이 80%에 달하면서, 초등교육이 지식교육 위주로 치우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물론 ‘지(知)’의 독서교육도 중요하지만, ‘정의(情意)’의 도야, 즉 인격형성의 교육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이 야스다의 교육관이다. 교육이 지식교육에 편향되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인간다움의 도덕성이 결여되거나 상실되고 만다. ‘작위교육’은 지식교육으로 얻어지는 이성교육의 장점을 취하면서, 다시 그 위에 실천교육을 시행하여, 지식과 실천의 양면의 조화를 추구한다. 이것이 ‘광주식 작위교육’의 교육목표이었다.

야스다는 소학교의 저학년은 분과학문적 지식교육을 벗어나 종합적 작위의 통합학습을 교육내용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아동의 개성을 존중하고, 자아확립을 위한 실천교육에 중점을 두자는 것이다. 그래서 소학교의

37) 安田保則, 앞의 책, 2~3쪽.

38) 安田保則, 앞의 책, 3쪽.

중학년 이상에게는 전면적으로 작위주의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광주식 작위교육’은 아동 스스로 자신의 정신 및 신체를 표현해 내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창조적인 창작 및 표현작업이 작위교육의 주요 학습방법(전략)이 된다. 즉 신체로 행하면서 배우고, 동시에 배운 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작위교육’식 교육방법이었다. 교사가 교재를 가지고 주입식으로 교육하게 되면, 아동들은 인식한 결과를 곧바로 실행에 옮기기 어렵다. 하지만 이미 지로 인식하고 이해하게 되면 곧바로 행동에 옮길 수 있다. 이렇게 인식한 것을 곧바로 신체적 작업을 통하여 표현하는 창의적이고 창조적 활동이 바로 작위교육의 교육방법이다.

야스다는 ‘광주식 작위교육’을 시행하면서, 교풍(校風)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모든 교사가 참가하여 교시(校是)를 설정 할 것을 우선적으로 요구하였다. 교시란 그 학교의 교육철학과 미래 교육비전이 담긴 글이다. 야스다는 모든 교사가 참여하여 결정한 교시는 마치 조선의 ‘김치’와 같다고 비유하였다. 김치를 담글 때는 각각의 재료가 각기 독립된 맛을 내지만, 김치가 익으면 혼연일체 되어 김치 고유의 맛을 만들어 내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교직원의 역할은 내적으로는 학교 경영의 공동 참여자가 되고, 외적으로 학교의 교시에 입각하여 학급을 경영하는 경영자가 되기 때문에, 교직원과 학생이 하나가 되어 함께 영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교풍(校風)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기대하였다.

야스다는 자신이 고안한 ‘광주식 작위교육’을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다음의 5가지의 강령을 제안하였다.

- 1) 개성존중: 아동의 개성에 입각하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각 방면의 특기를 충분히 신장시키도록 한다.
- 2) 생활존중: 자연스런 아동의 생리적, 심리적 방면에 관심을 기울여 지도한다.
- 3) 작업존중: 근로 작업을 존중하면서, 생산에 따르는 노고와 괴로움 기쁨의 감정을 통하여 인간성을 순화시킨다.³⁹⁾

- 4) 향토존중: 작위교육에서는 그 학교가 위치한 생활환경인 향토적 특성에 입각하여 교육한다. 광주식 작위교육은 향토의 특별사정을 살피고 그것에 적응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지방적 특색을 교재에 수용하고 향토화하는 데 노력한다. 나아가 아동들이 장차 공민(公民)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훈련을 실행한다.⁴⁰⁾
- 5) 국체존중: 아동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체를 옹호하고 앞으로 더욱 황위(皇威)를 드높이도록 노력한다.⁴¹⁾

위의 작위교육 실천 강령 중 다섯 번째의 국체존중의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실천강령은 현대 교육현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보편적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아동들에게 지식편중의 교육에서 벗어나 신체교육을 통한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다만 국체존중의 내용은 일본의 식민통치 교육목표를 반영하여 가장 강조하였던 내용으로 생각된다. 야스다가 당시 근무하였던 광주심상고등소학교의 인적구성을 보면, 대부분이 일본인이고, 직업은 이직(移職)이 빈번한 공무원, 은행원, 회사원 등의 자제가 40%에 달하고, 나머지 학생들의 가정은 대지주이거나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았다. 따라서 광주에서 교육받은 일본인 학생들에게 광주라는 지역사회의 특성을 교육내용에 첨부하여, 광주 나아가 조선을 이해하는 교육을 시행하고자 하였다.

작위교육의 궁극적 교육목적은 ‘진선미(眞善美) 성리건(聖利健)’을 갖춘

39) 여기서 작업은 손발을 움직이는 신체노동으로 도화, 습자, 수예, 재봉을 행하는 것이다. 이런 작업교육을 통하여 사람으로서의 근로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천하게 하는 것이다.

40) 당시 광주소학교의 인적구성을 다음처럼 설명한다. “우리 학교 아래 있는 내지인(內地人: 일본인)의 인구는 육천여명인데, 그들을 직업에 따라 대략 분류하면, 관공서의 직 및 은행 회사등에 근무하는 사람이 전체의 40%를 점하고, 상업은 20%, 농업은 10%, 공업이 10%, 기타가 10%, 무직이 4%정도이고, 아동의 수는 약 1천명 정도이다. 그리고 80% 이상의 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현황이다(安田保則, 앞의 책, 40면).”

41) 모든 아동은 등교와 하교 길에 천황의 사진에 경의를 표하고, 광주신사의 정례의 대제(大祭)에는 휴업하고 참배하며, 또 매달 1일과 15일 이른 새벽에 각자 자유참배를 하도록 한다.

건전한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다. 학습에서 진리를 탐구하고, 도덕적 생활, 미적 생활, 성스러운 생활, 근로에 의한 경제생활, 건강한 생활을 조화롭게 지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화로운 생활지도를 위하여 야스다가 강조하는 교육방법은 아동이 표현해 놓은 것을 통하여 아동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그 일례가 바로 ‘글쓰기’ 교육이었다. 학생들의 사상과 감정과 의지(意志)가 표현된 ‘글쓰기’ 교육을 하고, 교사는 아동이 쓴 글을 통하여 아동의 생활을 좋은 방향으로 계도하는 것이다. 즉, 글쓴이의 인격이 문장에 표현되도록 글쓰기를 지도하는 것이다.

실제로 야스다가 근무하던 소학교에서는 1학년 1학기부터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 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생활을 표현하게 하였다. 아동들은 누구나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런 표현력을 교육에 활용한 것이다. 표현은 단지 글쓰기와 그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수공(手工)이나 수예(手藝)와 같은 표현방법, 그리고 아동이 좋아하는 놀이학습도 아동의 생활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이었다. 따라서 야스다식 ‘작위교육’이란 아동이 자신의 생활을 표현하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주입식의 주지교육에서 벗어나, 물건을 만드는 기능을 익히고, 정감을 표현하고, 모티베이션의 의지를 밀고 나가는 활동을 학습화시키고 작업화시키는 것이라고 하겠다.

V. 맺음말

야스다 야스노리(安田保則)는 일본에서 고등사범학교를 졸업한 뒤, 전남과 광주에서 30여 년간 교육활동을 하였던 교육자이다. 그는 일본의 제국주의 확장과 전쟁, 그리고 주권을 상실한 조선이라는 교육외적 환경, 그리고 일본에서 광주 전남지역으로 건너온 일본인 학생들과 많지 않지만 조선인 학생들을 교육하는 입장에서 당시에 가장 이상적 교육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4권의 저술을 내놓았다.

야스다는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살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사람다운 삶이란 무엇일까? 인간의 정신적 생활과 물질적 생활, 즉 영육(靈肉) 양면의 생활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그의 교육목적은 건전한 시민 양성에 있었다. 건전한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의 일원으로 공동체와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상호부조의 협동적 사회성을 갖추도록 교육해야 한다. 개인과 사회는 유기적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개성 발전은 사회 문화의 진보에 이어진다는 것이 야스다의 교육관이다.

이러한 건전한 시민 양성을 위해서 야스다가 고안한 교육목표가 ‘광주식 작위교육’이었다. ‘광주식 작위교육’은 주지주의적 귀족교육의 단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현실과 이상의 조화’, ‘정신과 신체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독일의 노작학교(Arbeitsschule) 이론을 수용하여 신체를 움직이는 근로, 노동, 작위를 교육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야스다는 작위교육을 통하여 전인교육을 실현할 것을 기대하였다. 아동의 전인교육이란 생활지도 교육을 통하여 정신 생활, 도덕 생활을 함양하고, 현실과 이상의 조화를 이루는 교육이다. 이러한 교육이론을 광주의 소학교에서 실제로 시행하면서, 그 구체적 교육방법 및 교육활동을 기록으로 남겼다. 하지만 소고 이전에는 이러한 야스다의 저술 및 ‘광주식 작위교육’에 대한 소개가 없었다. 따라서 야스다의 저작을 발굴 소개하고, ‘광주식 작위교육’에 대한 개략적 소개를 한 소고를 출발점으로 하여 앞으로 보다 많은 일본 강점기 시기의 재조 일본인 교육자들의 교육활동이 연구되기를 기대한다.

오늘날 한국의 교육현실은 야스다가 교육개혁을 주창하던 시기의 교육환경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현재 고등학교 졸업생의 80%가 대학에 진학하면서, 고교교육은 오로지 표피적 지식을 전수하는 ‘학원(學院)’으로 전락하였다. 학생들의 인성적인 성향마저도 ‘인성교육진흥법’에 입각하여 인증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 되었다. 학교교육의 교과목 중, 수능에 포함되는 과목만이 살아남고, 수능에 포함되지 않으면 필요 없는 잉여교과목으로 취급받고 있다.

그러면서 인문과 과학기술의 창의융합교육을 당면 교육목표로 내걸고 있다. 이러한 작금의 현실에서 야스다의 ‘광주식 작위교육’은 다른 시기 같은 고민의 결과물임을 알 수 있다. 지식편향주의, 능력인증주의에서 벗어나 무엇이 참교육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孟子』

- 孫仁鏞, 『韓國教育史』, 문음사, 1987.
- 오천석, 『한국신교육사』, 현대교육총서출판사, 1964.
- 이만규, 『조선교육사(下)』, 을유문화사, 1948.
- 鄭在哲, 『日帝의 對韓國植民地教育政策史』, 一志社, 1985.
- 한국교육연구소편, 『한국교육사: 근·현대편』, 풀빛, 1993.
- 서울대학교교육연구소, 『한국교육사』, 교육과학사, 1997.
- 文部省, 『學制百年史』, 1972.
- 唐澤富太郎, 『教師の歴史 教師の生活と倫理:典型的教師像』, ぎょうせい, 1989.
- 北村友一郎, 『광주지방사정』, 용야서점, 1917,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실, 『(일제 강점기) 광주 문헌집』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2004.
- 三好信浩篇, 『日本教育史』, 福村出版, 1993.
- 石川松太郎他著, 『日本教育史』, 玉川大學出版社, 2001.
- 小川哲哉 외 3명, 『日本の教育の歴史を知る』, 東京: 青簡舎, 2012.
- 安田保則, 『朝鮮教育に安住して』, 大阪屋號書店, 1927.
- _____, 『作爲教育の建設と歸趨』, 郁文書院, 1931.
- _____, 『(광주)향토독본(郷土讀本)』, 광주공립 심상고등소학교 발행, 1937.
- 尹建次, 『朝鮮近代教育の思想と運動』, 東京: 東京大學出版部 1982.
- 田啓夫他編著, 『日本の教育の歴史と思想』, ミネルヴァ書房, 2002.
- 仲新他編, 『日本近代教育小史』, 福村出版, 1984.
- 仲新監修, 『學校の歴史 第5卷 教員養成の歴史』, 第一法規, 1979.
- 土屋忠雄篇, 『概説近代教育史-わが國教育の歩み-』, 川島書店, 1967.

丸山眞男, 『日本政治思想史』, 東京大學出版會, 1954(3판).

김광식·이시준, 『재조일본인 아동용 『심상소학교 보충교본』의 내용과 그 성격』, 『일본언어문화』 24, 한국일본언어문학학회, 2013, 425~444면.

류시현, 『1930년대 재조 일본인의 광주인식 - 『(광주) 향토독본』을 중심으로』, 『호남 문화연구』 59,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6, 1~26면.

문지은, 『1930년대 일제의 향토교육론과 향토교육 시책』, 『역사교육』 146, 역사교육 연구회, 2018, 297~324면.

정재철, 『한국에서의 일제식민지시대 교육사 연구 동향』, 『한국교육사학』 22(2), 한국교육사학회, 2000, 213~234면.

정혜정, 『1920, 30년대 한국근대교육사상의 전개와 그 평가』, 『한국교육사학』 22(2), 한국교육사학회, 2000, 235~259면.

立柄教俊, 『심상소학교 보충교재에 대하여』, 『조선교육』 64, 1921.

국회도서관(<http://www.nl.go.kr>)

국립중앙도서관(<http://www.nl.go.kr/nl/>)

일본 국립 국회도서관의 디지털 콜렉션(<http://ndl.go.jp>)

Abstract

A Study on Educational Writing and
Activity of Yasda Yasnori(安田保則), A Japanese Teacher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Han, Yae-won*

This study examined educational writings and activity of Yasda Yasnori a Japanese teacher in Gwangju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安田保則, 1885~?). He was born in Nomi-gun, Isikawa, Japan and was graduated from a teacher school in Isikawa. He came to Korea and worked as a teacher of a public school in 1915 and from 1918, he was engaged in diverse educational activities in Jeonnam and Gwangju for about 30 years. He published 『Working for Education in Korea(朝鮮教育に安住して)』(1927) which recorded the status of education in Korea at that time while working as a teacher of an elementary school and a middle school. Then he published 『Construction of Factitive Education and Consequence(作爲教育の建設と歸趨)』(1931) about trend of all-round education for 'Gwangju-style Factitive Education.' He compiled 『(Gwangju)Hyangtodokbon(郷土讀本)』(1937) which explained the necessity of education on the conditions of Korea at that time while teaching Japanese people at Gwangju Simsang Public School.

This study examined two writings mentioned above and his educational activities and perspectives. 'Factitive Education' accepted work, labor and feasance of children as educational methods to remove disadvantages of nobility education for intellectualist and realize harmony between body and mind, which was influenced by Arbeitsschule of Germany. He wrote about educational theories including specific educational methods and activities while working as a teacher in Gwangju. It was hard to understand Gwagnju-style factitive education as there were only a few studies on it, but this

* Chosun University

study has meaning in that it presented an outline of it.

Key Words : Yasda Yasnori(安田保則), Japanese colonial rule period, Gwagnju-style factitive education, eeducational perspective, Korean education

<필자소개>

이름 : 한에원

소속 :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전자우편 : yaewonh@Chosun.ac.kr

논문투고일 : 2019년 7월 23일

심사완료일 : 2019년 8월 19일

게재확정일 : 2019년 8월 26일